

'거대여당' 첫 원내사령탑 3파전 확정

김 "시스템 개혁" vs 전 "당청 소통" vs 정 "합리적 실용주의"

'68명 초선' 표심 파고들 9일간 선거운동... '86그룹'도 주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노리는 후보들이 28일 오후 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다. 친문 후보인 김태년(4선 당선)·전해철(3선 당선) 의원과 비주류 후보인 정성호(4선 당선) 의원의 3파전이다. 이들은 내달 6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선거운동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친 '황금 연휴' 동안 이뤄진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초선 당선인 68명과 표 분산이 예상되는 86그룹 등을 향한 집중적인 구애가 예상된다.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일꾼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 첫 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시 당·정·청 정례회의의 틀을 세운 경험을 강조하며 일하는 국회의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또 초선 의원들의 상임위 우선 배정 및 공약 실현 지원 등 '맞춤형 공약'을 밝혔다.

전해철 의원도 이날 오후 출마 기자회견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소통하며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친문과 비문 구별은 의미가 없다. 친문까지 있는 건 맞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네트워크가 잘 구비돼 왔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예정자 프로필

정성호	전해철	김태년
(59·경기 양주·4선) -강원 영구 출생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58·경기 안산상록갑·3선) -전남 목포 출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최고위원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56·경기 성남수정·4선) -전남 순천 출생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중요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날 출마 회견에서 자신을 '사심없는 무계파 비주류'로 묘사하며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당풍을 해치는 줄 세우기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대야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 수석부대표 경험을 앞세워, 야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며 '거대 여당'을 이끌 합리성·포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3명의 후보는 이날 오후 4시10분 예정된 기호 추첨 이후 선거 전날인 내달 6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총선 직후부터 당선인들에게 축하 전화와 화환을 돌리며 '표심 잡기'를 시작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만큼 대면 활동을 늘리며 그 행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이후 '황금 연휴'로 인해 임시국회 활동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적극적인 대면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후보들은 무엇보다 초선 당선인들과의 접점을 늘리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초선 당선인들은 선거권을 가진 당선인 163명 가운데 68명에 달한다. 추경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 역시 "추경이 통과되면 제가 자유로운 위치가 되니 한 분이라도 더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김정은 행방에 관한 시나리오 5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불참하면서 그의 행방과 건강상태를 놓고 여러 관측과 루머, 추측이 무성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행방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 수술 후 회복중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뉴스는 지난 21일, 익명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평북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 전용병원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고 인근 향산 특각(별장)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NK뉴스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측근들과 지방에 머물며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행보는 수술 후 회복중이라는 설명에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 위중한 상태 데일리NK뉴스 보도 수시간 뒤, 미 CNN은 김 위원장이 최근 큰 수술을 받은 이후에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개로 블룸버그통신의 제니퍼 제이콥스는 지난 20일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장 수술을 받았고, 그가 살아있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미 정부가 입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CNN보도와 관련해 "오래된 문건(old documents)을 갖고 보도했다"며 "부정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소셜 미디어에선 김 위원장의 신병이상설이 빠르게 확산됐다.

중국 외교부 경창(耿爽)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일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를 제공했다"고만 밝히며 "진단 키트와 의료진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격리 조치 북한은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 내) 발병 사례가 있다고 꽤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도쿄신문은 지난 23일 북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원산의 별장에 머무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원산 체류는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한 자가격리일 것"이라고 일본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또 소식통을 인용해 "경호요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발견돼 김 위원장이 경비 태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원산행의 이유라는 정보가 흘러 다닌다"고 전했다.

◇ 군사훈련 참관 중 부상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이상설과 관련, 주목을 받는 곳은 원산이다. 원산은 김 위원장을 위한 특각이 마련돼 있는 곳이며, 또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수차례 이뤄지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지난 21일 이후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해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지난 25일 보도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원산에서 멀지 않은 선덕비행장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데 그때 참관 중 다쳐서 태양절 참배에 불참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내 '최고 존엄'이 부상당할 정도로 급전 참관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국제사회 이목 집중시키기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긴급전문가 좌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을 의도했을 수 있다고 봤다.

윤상현 위원장은 "최고존엄의 권력 공백 사태설이 퍼지면 북한 내부 동요 때문에 김 위원장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안 나타나면 진짜 문제"라며 "의도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일주일 후 등장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구성 의결...전대 연기는 불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오는 8월31일 전당대회 전까지 임기가 제한되어 있다.

이 탓에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2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체 639명 위원 중 과반인 323명이 참석해

이 가운데 177명의 찬성으로 '김종인 비대위'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전국위에 앞서 차기 전당대회 일정을 규정한 당헌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열 예정이었던 상임전국위원회는 재적 45명 중 17명만 참석,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31일 전당대회는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헌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김종인 비대위'는 새 지도부를 뽑는 8월 말 전당대회까지 존속하게 된다.

최영범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